



진정한 부모되기

송종용/심리학 박사, 서울학습장애상담센터 소장

오

마전 성교육 강사 교육 시간에 다루어졌던 상황을 옮겨적는다. 이 상황은 부모가 외출하였다 돌아와서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친구를 껴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이었다.

아들 : (당황하고 마음속으로 죄책감이 들고 어떻게 변명해야 하나 고심한다.)

아버지 : (역시 당황하고 화가 나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아들 : (변명거리를 찾는다.)

아버지 : 너 이리 왜! 머리에 피도 안마른 놈이 (하략)

아들 :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화를 낸다.)

강사 : (아들에게) 왜 화를 냈습니까?

아들 : 일단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아서도 화가 나고, 내가 화를 내야만 아버지의 화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사 :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들 : 일단 화가 나니까 아버지 말은 듣기도 싫고,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날 이해하려 한다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야단치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 밖에는 안들어요.

인간 역시 동물처럼 자신이 공격을 당할 때에는 같이 공격을 해서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다.

상대가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일단 맞서서 공격적인 언행을 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2 : ○○야. 이리 좀 나오거라.

아들 : (어떻게 변명할까 고심한다.)

아버지2 : 지금 아버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랬다. 너도 그렇지? 너한테 저런 여자친구가 있는 지도 몰랐고..... 그동안 아버지가 너와 대화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드네. 내가 보기에 꽤 친한 친구 같던데 어떤 친구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아들 : (마음이 풀어지고, 아버지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강사 :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화가 나지 않으시나요?

아버지2 : 왜 화가 안나겠어요. 좀 과장하면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일종의 배신감도 들구요.

강사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2 : 제가 화를 낸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보다는 '아, 이 녀석이 뭔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 일을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화를 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이지만 심리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 자신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부모가 되려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언행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끊임없이 반성함으로써 가능하다.

